영암군, '독천 낙지음식명소거리 활성화' 간담회

영암 유일의 음식거리…재도약 위한 소통의 시간

"학산면민 의견 모아준다면 군에서도 반드시 응답"

영암군에서는 최근 영암의 유일한 음식거리인 '독천 낙지음식명소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산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주관으로 영암군수와 학산면장을 비롯한 군 공직자와 낙지거리 상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와 인구감소, 무안 등 인근지역의 낙지음식거리 건설 등으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며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낙지음식명소거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독천 낙지음식명소거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구조물 철거에 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독천 낙지거리와 학산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한편, 2010년 음식 문화 개선 시범 거리로 지정된 '독천 낙지음식명소거리'는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 학산면과 인근 미암면 일대 갯벌에서 나는 최고품질의 낙지를 활용한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생성되었으며, 초기 갈낙탕을 주메뉴로 한 5 ~ 6개의 음식점이 운영되어 오다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2000년대 초부터 가게들이 모여들어 현재는 30여 개의 음식점이 성업 중인 영암의 대표적인 먹거리 존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영암의 유일한 음식거리인 독천 낙지음식명소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상인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이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가 간 상생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 관 주도의 행정과 달리 민선8기 영암군의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학산면민들께서 학산면 낙지음식명소거리와 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군에서도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청년 정신건강 증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무안군은 지난 6일과 13일 지역 대학교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지속 관리로 만성화를 방지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동상담실은 ▲우울증 선별 스트레스 측정검사,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우울증 자가진단(PHQ-9) 검사 후 고위험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임상 자문의 심층상담을 통해 ▲학생 상담센터 서비스 연계, ▲정신 의료기관 치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청·장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어서와~ 영광은 처음이지?"

영광군, 신규 공직자·유관기관 전입 직원 47명 대상 바로알기투어

영광군은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영광군 신규 공직자·유관기관 전입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영광바로알기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투어는 지역 명소와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군정과 인구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광군민으로서의 애향심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사를 시작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기독교순교지, 칠산타워 등을 방문하였다.

영광바로알기 투어에 참여한 유관기관 직원은 "사회적 화두인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평소 공감하고 있으며, 군의 선제적인 인구정책이 실효성이 거둬 영광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군에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영광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전입 직원들에게 군의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관내 전입을 장려코자 하반기에도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 정책에 훈풍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시너지 창출 기대

목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친환경 소재인 HDPE로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200억원(국비 120억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소형어선 중 96%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무단방치·폐기 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FRP 중심의 소형선박을 대체할 선질로 부각되고 있는 HDPE는 현행법상 구조기준의 부재로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HDPE 소형어선의 제조 및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목포시를 비롯, 영암 대불국가산단과 여수 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HDPE 소형어선 제조와 해상실증을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소형어선이 집중분포되어 있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후방 산업의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조감도(안)

박홍률 목포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우리 지역의 신산업 혁신을 이끌어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와 연계해 목포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선박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민선 8기의 핵심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남항에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는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조선·해운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제25회 나비대축제 대비 위생·친절교육 실시

음식점·미용업 영업자 380여 명 대상

함평군 보건소가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관내 음식점·미용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최근 일반음식업 및 미용업 영업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함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친절교육, 심폐소생술, 미용기술 등이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김광춘 기자